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 전공

용 해 연

2017년 12월

대학생의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남진열

용 해 연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용해연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년 12월

목차

<국문초록>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리	6
II. 이론적 배경	7
1.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7
2.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7
3.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의 특성	22
4. 선행연구 고찰	25
III. 연구방법	28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8
2. 측정도구	29
3. 자료 분석방법	31
IV. 연구결과	3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2. 조사대상자의 중국인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	38
3.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경험요인에 따른 인식 차이 비교	43
4.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태도에 따른 인식 차이 비교	45

5.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

V. 결론 및 제언 50

참고문헌 55

부록 60

표목차

<표 1> 국적별 5대 강력범죄 발생검거 순위	16
<표 2>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	24
<표 3> 측정 도구의 구성	30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표 5> 조사대상자의 이주민 및 관광객 경험	35
<표 6>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37
<표 7> 한국인의 자긍심 수준	37
<표 8>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	38
<표 9>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39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	40
<표 11>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41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	43
<표 13> 중국인 이주민 경험요인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	44
<표 14> 중국인 이주민 경험요인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	45
<표 15> 중국인 이주민 태도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 대한 인식의 차이	46
<표 16> 중국인 관광객 태도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 대한 인식의 차이	46
<표 17> 중국인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8
<표 18> 중국인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9

그림목차

<그림 1> 외국인주민 수와 비중 추이,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	10
<그림 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2015년)	11
<그림 3>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14
<그림 4> 제주도내 중국인 범죄현황	16

<국문초록>

대학생의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용해연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로 측정하고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 또는 갈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에 미치는 형성요인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제주시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6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중국 이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여성’, 학년은 ‘1학년’이, 학년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제주지역’, 종교는 ‘있는 집단’, 생활수준은 보통으로 ‘중’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은 남성보다는 여성, 학년은 1학년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중국인 이주민과 접촉빈도가 많은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활수준은 ‘상’ 집단이 긍정적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태도에 대학생들은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범죄율을 높이며,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세금 부담이 늘어갈 것이며,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인식은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인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거주지역이 제주지역인 경우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민 태도 수준이 낮고, 한국인 자긍심 수준이 낮으며, 단일 민족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인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이 여성인 경우, 거주지역이 제주시인 경우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객 태도 수준이 낮은 집단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았고 최근 보이고 있는 차오포비아 현상은 이러한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서 제주지역과 광주지역은 외국계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복지정책을 더 이상 빼놓을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다문화 시민성과 다문화 복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계적이며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상호공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 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의 인식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인종적 문화적 갈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민적 외국인 기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중국, 이주민, 관광객, 인식, 태도, 다문화 시민성, 다문화 복지정책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한국사회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노동이주자, 결혼 이민자의 급속한 증가로 다문화 및 세계이민 사회로 초래하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거주외국인주민수는 174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2006년 54만 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체 주민등록인구비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행정자치부, 2015). 또한 지난 2011년 UN이 발표한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한국의 2005~2010년 외국인 순 유입률은 인구 천 명당 1.1명으로 일본(0.4명)과 중국(-0.3명)보다 높은 세계 13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UN, 2011). 해당 수치는 1년 이상 체류하는 장기 이동자를 대상으로 집계된 것으로, 한국 사회의 외국인 유입률이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체류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동북아시아 국가가 가장 많은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39.9%(약 70만 명)로 가장 많고, 다음 중국인이 14.9%(약 26만 명), 베트남 11.5%(약 20만 명), 미국 4.2%(약 7만 4천명), 필리핀 4.1%(약 7만 1천명)을 차지했다(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그 중 중국계 이주민이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 인접국가로서 접근성과 한중 국제 경제교류의 본격화, 한류 열풍으로 인한 쇼핑과 문화 활동에 깊은 관심 등의 요인으로 관광객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들 1,420여 만 명 중 중국 관광객들은 612만 명으로 일본을 제치고 최대 방한 송출 국가이기도 하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정상화는 21세기 냉전의 해체와 함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의 정치·경제·문화·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특히 1978년 중국은 성공적인 개혁개방으로 경제의 급

성장, 소비의 급격화, WTO 가입에 따른 개방정책 확대에 따라 국가 차원으로 높아진 소득 수준과 생활수준으로 국내 방문 중국인이 많아지게 되었다. 초창기 한국을 찾았던 중국계는 주로 1990년대 후반 시장개방과 국내노동력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허가제¹⁾를 시행하고 합법적인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데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내 한국동포들이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대량 유입을 하게 된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은 문화의 이동을 가져왔는데 국민들의 여가와 관광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83년 홍콩친지 방문을 시작으로 ADS(중국공민해외여행사유목적지)의 단계 자유화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徐帆, 2007). 따라서 많은 중국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소비력과 경제력을 들고 이주와 관광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중국 국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관광산업은 금융 위기와 각종 불리한 요인 속에서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외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 수는 2007년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국가여행국, 2011). 따라서 중국의 여행시장은 경제성장과 위안화절상과 여행지역제한의 자유화 등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국내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은 서울과 제주도를 가장 이상적인 거주지로 뽑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이 시기와 맞물려 국내외관광객,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민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는 2002년부터 소득중대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합법적으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는데, 지난 해 제주도에 들어온 무비자 외국인은 54만 8205명으로 54만4775명(99.4%)이 중국인이었다. 또 제주지역에서는 2011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대상 사업장(10만㎡ 이상)에 있는 분양가격 5억 원 이상의 휴양형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외국인에 한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는 투자이

1) 고용허가제는 2007년에 중국과 CIS지역 출신 동포들을 위해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어 현재 고용허가제는 일 반고용허가제가 방문취업제로 구성되었다. 오정은 외,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민제도²⁾가 시행 된 지 4년여가 되어가고 있으며 가족을 포함하여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운영한 이래 2014년 9월까지 총 910명에 이르는 외국인(910명의 98%에 해당하는 898명이 중국국적)들이 제주에서 9,770억 원(1,462건)의 부동산 투자를 집행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도 내 중국인 이주민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모두 9,927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2002년 생물권보존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달성한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곳이다. 이러한 여건은 내국인에게도 귀농·귀촌과 문화예술인, 창업자들이 정착하는 등 이주 열풍을 가져왔고 이주 인구 급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은 제주지역민에게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다른 도시에 비해 제주도는 섬지역의 특성상 고립된 지리적 한계로 다양한 지역민과의 접촉 및 공존 경험이 적고 혈통에 의한 단일 민족의식이 강한 제주인에게 다양한 지역민 및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와 제반 권리에 대해 관용과 포용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제주의 단절된 문화의 고유성은 외지인을 구분하는 인식적 틀로 작용하면서 외부 세계에서 유입된 외지인들에게는 ‘육지’와 ‘육지사람’으로 표현된다(유철인, 1995 재인용). 또한 관광산업이 성장과 함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지인들의 경제적 성장은 제주사람들에게 경계심과 배타심을 갖게 했으며 단면적으로 국내 이주민들에게 ‘외지것, 육지것’이라는 표현은 외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강준혁, 2011). 특히 중국인들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잦은 충돌과 사건 사고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고 있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현상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라 외국인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인식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2) 투자이민제도: 투자이민제도는 투자와 이민을 결합하는 제도로, 특정한 투자대상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투자대상국에 거주(F-2)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현재 투자이민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는 거주(F-2)자격이 있음(한국 법무부, 2013)

같이 시사하고 있다(김동수 외, 2011).

광주는 ‘빛과 도시 예술의 도시’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와 광산업,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표방하고 2014~15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UN인권도시 추진 등 광주는 창조도시 및 관광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예로 광주·전남권 대응 방안으로 광주시의 차이나 프랜들리 정책, 전남도의 중국지향의 발전전략,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세기 유치, 크루즈 및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골프 및 노인, 청소년 유학생 중국인 활용 관광객 유인 정책 등 지속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주민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광주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의 하나로 마련된 ‘중국 문화주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재광 중국인들이 문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음악회, 미술전 등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과 근접지역이며 호남권지역의 문화·관광중심도시인 광주광역시를 함께 조사해서 대학생의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는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연구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상호작용해서 각각의 문화를 유지하며 국민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현, 2013 재인용).

또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의 공존 또는 갈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에 미치는 형성요인의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인 현재 대학생들은 중·고등 시절 다문화 교육을 접해본 세대이고, 최근 대학생들의 국제 역량이 증시되면서 외국여행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외국교육봉사,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의 늘어남에 따라(이부영, 2015) 중국인 및 외국인을 접촉한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특징과 더불어 이전의 대학생들과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기성세

대보다 고정관념이 적고 개방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가치변화를 가늠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김민경, 2010). 긍정적인 점은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한 편견이 깊은 사회라고 인식하며,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 일반의 통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강진구, 2008).

앞으로 수집한 연구 기초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차이와 원인을 찾고,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지역과 광주지역의 다문화 복지정책의 지향점을 찾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가 대학생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파악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오포비아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에 필요한 교육적 접근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하여 대학생의 인식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 1-1.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학년, 거주지역, 종교유무, 생활수준)에 따라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1-2.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경험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유입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수준에 따라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6. 중국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용어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주민

국내의 많은 문헌 연구보고서에서 이주민을 국내 거주 외국인 혹은 외국인 주민으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주민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이다(국립국어원 표국어사). 또한 OECD(2015)는 ‘이주민’을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로 정의하고, 출생국가와 출생지가 이주민을 정의하는 가장 흔한 두 가지이며 이주민들은 출생지로부터 재 거주지로 이주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용어임을 제시한다(OECD, 2014).

2) 관광객

통상적으로 관광객(tourist)이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여행하는 사람이다.” 또는 관광객이란 “변화를 체험할 목적으로 집을 자발적으로 떠나 특정장소를 방문하는 사람” 이다(박시사, 2002).

3) 중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을 크게 민족, 국적, 거주지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EIU, 1995). 각각의 내용은 중국 여권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인, 홍콩·마카오·대만 거주 중국인, 중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중국여권 소지자이다(팽수, 2015).

4) 다문화 인식

인식이란 어떤 대상을 감지하고 이를 분별, 판단하는 의식의 작용이며, 이성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과 사물간의 관계에 관해 바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다(김충효, 2009). 또 인식이란 한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일련의 신념을 뜻하는데 사용하지만 보다 전형적으로 한 집단의 성원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 합의적으로 가지는 일련의 신념을 말하는데 사용된다(Stricker, 1996). 다문화 인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사회의 문화 배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오현주, 2012).

II. 이론적 배경

1.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 인식과 태도

인식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을 말하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합의된 신념을 일컫는다(김종배·엄인숙, 2011). 외국인에 대한 국내 다문화 인식이란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수준을 말한다. 다문화 인식이 높다는 것은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 인식은 단순히 지식수준이나 행동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지, 정의, 행

동 영역을 포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배경인 성별, 비형식 경험, 다문화 교육의 경험을 들 수 있다(하경애, 2011)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다문화주의는 서양문화에 개방적인 반면 아시아 후진국의 문화와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통해 측정해본 한국인의 태도는 다문화 가치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단일민족·단일문화 국가보다는 다민족·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세계적 흐름을 수용하고자 하지만 개인의 가치관과 공동체적 가치관이 동일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장태환, 2001). 한국인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인지된 위협이 클수록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김정규, 2013). 또한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상황에서 지금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이 좋지않은 않지만, 이미 현실적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민과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또 임도경·김창숙(2011)은 다문화 인식 요인을 첫째, 사회적 거리감, 둘째,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셋째 한국인 인정조건으로 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어느 한 집단이 다른 한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수용정도를 측정하기 한 도구이며,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한국인 인정조건은 어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서를 일컫는 국가 정체성과 연관된 것이다.

Allport(1954)와 Fishbein(1967)는 태도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물과 상황에 대처하는 개별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 역동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준비도, 조직적인 생각, 정신적, 신경적 상태라고 정의하며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즉 태도란 개인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생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획득 또는 형성 되는 것이다(정현숙, 2011:15 재인용). 태도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예측하고 일단 한 번 형성되면 비교적 지속적이어서 상당히 장기간 어떤 상황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이진아, 2011). 즉 긍정적인 감정평가를 한 대상에는 접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평가하는 대상은 회피하거나

배척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한규석, 1995; 정현숙, 2011)

태도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방식은 사회적 거리감으로 사회적 거리는 미국 사회학자인 Park가 독일의 사회학자 Simmel의 논의로부터 이끌어낸 개념이다. Park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 간 차이는 단순하게 동화과정을 통해 사라질 것으로 보지 않았다. 즉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어떠한 사회적 거리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 거리는 개인이나 집단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친밀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감으로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백인선호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장태환, 2001; 임도경·김창숙,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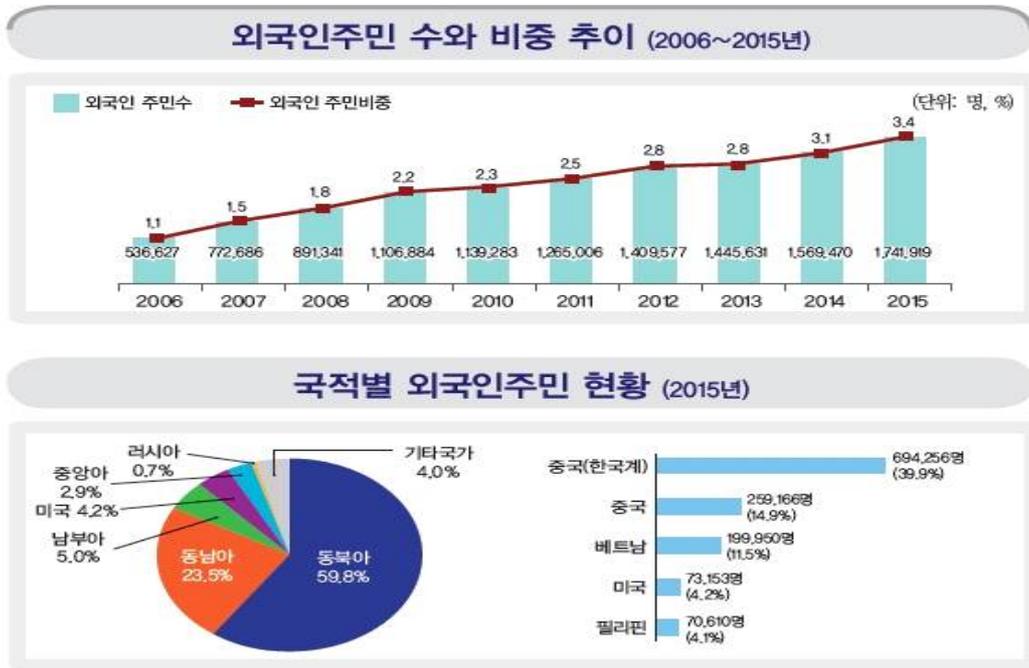
선행연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선행해왔다. 예를 들어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연구(이태정, 2009; 조희선, 2010)등을 비롯하여, 다문화교육 및 멘토링 참여경험의 효과(김진철·장봉석, 2010; 서현아 외, 2011; 어성연·양정혜, 2012; 한석실; 2009), 다문화 인식 및 태도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을 다룬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연구의 흐름과 그 동향을 밝힌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며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과 광주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인 이주민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1)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현황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 자녀는 모두 174만 1,91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한다. 물론 이 수치는 안전행정부가 장기체류를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1년 이내의 체류도 포함된 수치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 국내에 지속해서 거주할 다문화인은 3.5%보다 적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2006년 54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는 이처럼 급속하게 ‘다민족·다문

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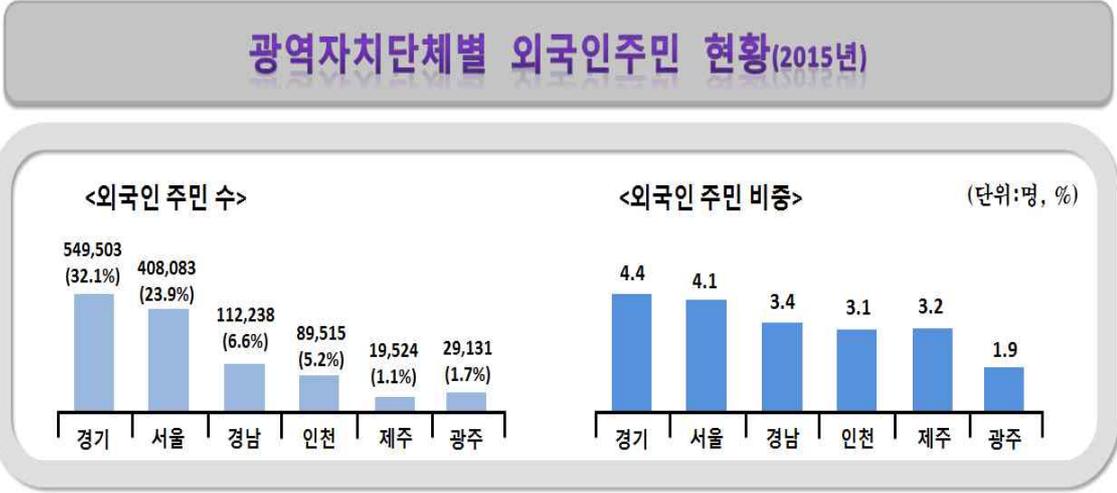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주민 수와 비중 추이, 국적별 외국인 주민현황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과 시사점(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행정학박사)’ 보고서³⁾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로는 경기도, 서울, 경남, 인천, 충남, 제주, 광주 순으로 외국인 인구가 많고 특히 경기도(약 55만명)와 서울(약 41만명)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도(약 20만명), 광주(약 30만명)으로 외국인 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출처 : 한국인권신문(2016.04.02.).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174만명 시대.

<그림 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외국인 주민유형을 보면, 국적 미취득자가 79%(약128만 명), 국적취득자는 9.1%(15만8천명), 외국인자녀는 11.9%(약 20만7천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34.9%, 외국국적동포는 16.4%이며, 외국인자녀 11.9%, 결혼이민자 8.5%, 혼인귀화자 5.3%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수도권에 80.2%가 몰려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수도권에 61.8%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53.3%, 비수도권에 46.7%가 살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동북아시아 국가가 가장 많은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39.9%(약 70만 명)로 가장 많고, 다음 중국인이 14.9%(약 26만 명)를 차지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다수가 중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의 약 40%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한국계)이라는 것이다. 지리적 가까움과 언어적 이점이 그들을 한국 사회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서울올림픽 이 후로 추진된 우리나라 정부의 북방정책⁴⁾ 또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유입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위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의 경우 서구 유럽의 15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다문화 사회와는 다르게 불과 20~30년 사이에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급속한 이주민 유입현상은 사회통합의

4) 정지윤·황대성·강경식(2011), “국내외국인 취업실태 현황과 요구도 및 정책적 지원방안”, 『2011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서울: 대한안전경영과학회), p.169.

약화, 이주민과의 갈등, 고정관념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이승하, 2009).

2)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제노포비아

외국인 이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반 이민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이주 집단으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외국 유학생, 재한 동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 시장 개방과 국내노동력의 구조 변화로 ‘산업연수생’ 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량 유입됐으며, 2000년대부터 동남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은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국가안보의 위협, 이주민 범죄의 증가로 인한 국내 치안부재, 혼혈인 증가로 인한 민족정체성 혼란,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다문화 지원정책과 관련법 제정,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으로 인한 국부유출 등이 나타났다(kang, 2014). 또한 아무런 법적·행정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취업은 국내 노동시장을 크게 교란시켜 왔으며(이혜경 외, 1998),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는 것이다(Cliford R.Shaw, Henry D, 1969). 한국사회의 현실에서는 특히 이주노동과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들의 범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이주 외국인으로 인한 문제는 외국인 혐오와 제노포비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제노포비아 현상은 서유럽처럼 심화된 갈등양상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서유럽의 경우 대략 이주 20~30년 경과 후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최경자, 2016).

현재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혐오증을 유발하는 대상이 차별적이라는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은 차이가 있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보다는 개발도상국가 출신의 다문화 인들에 대해 ‘우월’에 기반을 두어 차별 및 혐오가 이루어진다고 분석된다(한건수, 2012).

(1) 차오포비아 (Chao-Phobia, 朝-Phobia)

체포비아(Xenophobia)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포비아(Multiculture-phobia) 이슬람에 대한 반감 무조건으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이슬람 포비아(Islamophobia)나 우리나라 경우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에 대한 사건 사고를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므로 형성된 차오포비아(Chao-Phobia) 등이 있다. 차오포비아(Chao-Phobia, 朝-Phobia)는 ‘조선족 혐오’라는 뜻의 신조어로 포비아(Phobia: 혐오감)와 ‘차오’(朝의 중국 발음)의 합성어이다. 조선족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한국계 중국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재중동포이다. 조선족은 주로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1860년대와 1870년대 간도지역으로 이주한 한국인으로 중국영토에 우리민족이 머물게 되면서 중국 정권이 수립된 후에 동북지역의 조선인들을 북한에 편입시키거나 가맹국으로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에 두고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형성되었다. 그로인해 조선민족을 조선족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산업연수생, 친척방문 등을 시작으로 한국으로 유입이 시작되었고 현재 서울에만 약 25만명 가까이 살고 있다(홍기혜, 2000). 조선족은 한국 정부의 정책 및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체류와 출입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주화 경향을 보이며, 밀집 거주 지역을 형성해 한국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다. 또한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언어적인 강점과 동포라는 정서적인 공통적인 부분까지 한국 내 조선족들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조선족에 의해 발생된 것이 대중매체를 타고 전파되면서 조선족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족혐오라는 신조어인 차오포비아(Chao-Phobia, 朝-Phobia)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3년 6월 22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외국인 우범자들 중심으로 이들이 조직화·세력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오원춘 사건처럼 사회파장이 큰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사이에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확산될 염려가 있다고 한다⁵⁾.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조선족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은 긍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조선족 관련 범죄 사건사고 및 갈등이 많아지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 당사자들의 사회적응, 외국인 이주자들의 범죄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문제 등이 혼합되어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추세가 계속될수록 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5년 1만3천834명에서 2014년 3만8천67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림 3>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5) 조선일보, 2013년 6월 22일자에는 “외국인 150만 시대……우범자, 나라별 세력화 조짐”이라는 타이틀로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표 1> 국적별 5대 강력범죄 발생검거 순위(2010~2013)

순위	국적	계	2010	2011	2012	2013
계(명)		90865	22188	24615	21764	22298
1	중국	58125	14248	15677	13646	14557
2	베트남	8487	2324	2438	2059	1666
3	미국	6928	1509	1788	1832	1799
4	몽골	5566	1304	1503	1485	1274
5	태국	3260	1099	944	620	597
6	우즈벡	2943	444	728	778	993
7	대만	1774	335	504	439	496
8	필리핀	1642	426	535	3179	364

국적별 범죄자 중에서 중국인 체류이민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국적별 5대 강력범죄 발생 검거 현황(2010~2013)에서도 중국 1만4,557명, 베트남 8천487명, 미국 6천928명, 몽골 5천566명, 태국 3,260명, 우즈벡 2천943명, 대만 1천 774명, 필리핀 1천 642명으로 중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가상준 외(2014)는 한국 내 북한 이탈 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북한 이탈 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 집단 중 조선족에 한 혐오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김동수 외(2011)는 한국사회에 중국인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인식을 연구하고 그에 관해 기술하였는데 부정적 인식으로 외모 측면에서 뺨새남, 시끄러운 목소리, 성격 측면에서 게으름, 장사꾼, 자만심, 생활습관 측면에서 불결함, 사기, 거짓말, 유사품, 한국인과의 관계 측면에서 역사적 갈등, 한국사회에서의 범죄, 유능성 측면에서 독창성이 없음, 저소득층이 많음. 환경조건 측면에서 공해 재해, 공산국가, 중화사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민지선(2013)은 조선족은 한민족이지만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로서 중국문화에 많이 동화되어 중국인과 같은 생활과 문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거부감이 그 문화를 누리는 조선족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신의기(1998)는 우리나라에서 중국거주 동포에 대한 멸시의 뜻을 가진 용어로 조선족이라 칭한다고 주장했다. 즉, 재중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재중동포에 대한 우월감 갖고 부르는 용어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용어이며 ‘차오포비아’가 나타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2) 제주도와 차오포비아

1998년 ASEM회의에 참석한 한중 두 나라의 정상들은 회담을 갖은 자리에서 중국인이 한국관광에 대한 부분 개방에 합의하여,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가 결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국인 관광시장 확대를 한 수용태세개선 관련정책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현재 중국인 대상 영주권 정책을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8월 9개의 성·시에 대하여 한국을 관광목적지로 개방하였고, 2000년 6월 한·중 문화관광협약각서가 체결되어 중국 전역을 한국관광 자유화지역으로 확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하면서 현재 국내인 경우 제주지역은 무비자 입국 허용과 비자유건 간소화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무사증 입국으로 관광목적 입국자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관광목적 입국자들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고 무단이탈하여 도내 및 다른 지방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력상태가 낮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각종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다(장성수 외, 2011).

<그림 4> 제주도내 중국인 범죄현황



<출처:YTN, MBN 뉴스, 2016.9.30>

지난 9월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첸 모씨(50)에 의해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숨진 사건, 4월 서귀포 10대 자매만 사는 집에 50대 남성이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들켜 성폭행과 폭력을 시도한 사건, 4월 식당여주인과 음식 값으로 시비 중 집단 폭행 사건 등 중국인의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인해 제주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차오포비아를 불러오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347명이며 그중 중국인 240명으로 69.2%에 해당되고, 중국인 범죄증가 추이 현황을 보면 2006~2015년까지 약 11배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도 증가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준(2012)은 아직 한국은 외국인 혐오로 인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발생하거나 테러가 발생하는 위험단계는 아니지만 이는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연하여 우리 사회의 위계적인 민족성 성향에 비추어볼 때 잇따른 외국인 범죄 탓에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낙인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진다면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내 차오포비아의 형태는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중국인 범죄증가가 원인이란 비판이 있다(윤의원: 법무부 국정감사). 등록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무비자 입국 관광객 등 최소 3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머물고 있는 제주에 무비자 입국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2.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국가 자긍심과 국민 정체성

자긍심(self-esteem)이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보다는 자신의 내적 생각이나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는 개인의 가치(personal worth)’ 또는 자아존중(self-respect)이라고 정의 되어진다(Barker, 1995; Crocker at al, 1994). 국가 자긍심은 국가에 대한 애착, 소속감, 충실성, 그리고 우월감으로 정의된다(정기선, 2004).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에 있어서도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매우 강력한 감정적 요소로 존재한다. 에반스와 켈리(Evans and Kelley)는 24개 선진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계화의 조류가 국가정체성과 국가자긍심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Kim(1994)은 미국의 애틀랜타시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족정체성과 자긍심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민족정체성이 높은 단계인 통합적 민족정체성(integrated ethnic identity)을 가진 참여자에게서는 자긍심도 높았지만, 주변적 민족정체성(marginal ethnic identity)을 가진 참여자에게서는 자긍심도 낮았다.

이 국가자긍심은 국가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국가 정체성은 흔히 국민정체성이라 하며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느끼는 소속감’ 내지는 ‘국가 또는 국민과 연관하여 갖고 있는 신념과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전병주, 2014). 이러한 국민 정체성은 개인에게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국민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위급상황(in an emergency)에 드러나기도 하며 국민정체성은 마음 구석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마치 무의식 속에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Miller, 1997).

국민정체성은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집단 사이의 통합과 갈등, 또는 포함과 배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주의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국민정체성은 이주의 세계화가 확산된 현대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황규호(2012)는 국민 정체성이란 하나의 국가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속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귀화 자격 심사 기준으로 종종 활용되고 있는 언어 사용 능력,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 국가의 이념적 가치에 대한 이해 수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요컨대 국민정체성은 해당 국가의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구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들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황규호, 2012: 239). 한편 ‘한국인 정체성’은 다른 나라의 국민정체성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 정체성의 특징에 따라 한국인들은 단일문화권 안에서 단일민족주의를 당연시해왔다. ‘한국인들은 같은 혈연의 한민족이라는 깊은 인식과 민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충성심, 즉 깊은 내적 연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홍은화(1996)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단일민족의 강조는 독립국가 건설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는 이바지하였으나,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로 변질시키고 외국인 또는 혼혈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어 화교와 혼혈인에 대해 차별과 배제가 행해지기도 하였다(서범석, 2009).

김현숙·최송식·김희재(2011)는 한·중·일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태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대학생은 혈통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 모두 비교 국가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은 혈통적 정체성이, 일본 대학생은 시민적 정체성이 비교 국가 대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문화가 되면서 인지된 위협의 요소가 세 국가 모두 달랐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생들은 일자리, 경제 기여 등에서, 중국 대학생들은 사회문제, 외국 집단 거주 등에서, 일본 대학생들은 혈통훼손, 세금 증가 등으로 위협 요소를 꼽았다고 조사하였다.

2) 단일민족의식

한국의 민족 중심의 국민정체성은 혈통과 지리적 측면을 부각시킨 ‘단일민족 의식’이 대표적이다. 단일민족의식이란 자신이 소속된 민족이 하나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식이다.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혈연적 문화적 공동기반과 단일민족국가 안에서 살아온 역사를 통하여 민족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의식을 키워왔다.

이광규(1988)는 한국은 단일민족으로서의 경험이 길었고,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부족한 민족이고 특히 인종에 대한 편견이 강한 민족이라고 하였다(이정희, 1999, 재인용).

한혜림(2010)의 연구에서 초등교사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민족을 추구하는 인식을 가진 집단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실시한 임미선(2010)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민족을 선호 할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충옥 외(2009)에서는 지나친 단일민족성 추구는 정체성에 대한 폐쇄적인 의식 구조를 형성하여 다원화 되는 한국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공동체에 속한 범주 안에서 정의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다. 즉 ‘나’라는 하나의 객체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안정성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단일민족중심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긍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우월함을 갖고 있으며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지닌다(전경숙·박혜정, 2005)

3) 접촉경험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한 구조화가 이루어진 집단 간은 집단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며 편견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이론을 가설(집단 간 이론)이라 하며 집단 간의 직접접촉을 통해 집단 간 편견 감소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Dovidio, Eller, & Hewstone, 2011: 148; 이지영, 2013 재인용). 접촉이론은 동일한 환경 안에서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에 관해 설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이론으로 다민족, 다문화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접촉 이론은 초기에는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Allport(1954)는 접촉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서 접촉이 일어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접촉 이론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이 다수자의 입장에서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비판하며 상호 간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직접 접촉은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ropp & Pettigrew, 2005). 소수자의 경우에는 접촉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지속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편견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Dixon(2006)은 미국의 백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안과 히스패닉에 대해서는 접촉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

났으나, 흑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음을 밝히며, 집단에 따라서 접촉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국내의 연구로는 이진아(2008)는 다문화 가정과 코시안의 접촉 경험이 해당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냄을 밝혀낸 바 있다.

임도경·김창숙(2011)의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권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차별 성향이 대부분 중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을 대학생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외국 문화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또한 미디어(인터넷, 방송, 신문, 영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다문화 인식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한 국가 출신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더 오해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는 보도 자료와 연구 결과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공운경, 2013; 박경철, 2012; 박경태, 1999).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에 한 편견과 배타적 태도가 부유한 국가 출신보다 빈곤한 국가 출신들에게 집중되는 까닭도 빈곤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부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부유한 지역 출신의 이주민보다는 빈곤한 출신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빈곤한 국가 출신의 이주자 집단에 대한 접촉 효과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별 대학생들의 인식 태도에 접촉 효과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4) 인구사회학적 배경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성별, 학년, 부모님 거주지역, 종교, 생활수준 등 여러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선정하였다.

원숙연(2013)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인구사회학적 배경인 결혼의 유무와, 연령, 그리고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연구에서 밝힌 바 있고, 장태한(2001)의 “한국대학생의 인종 민족 선호도에 한 연구”에서는 성별,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타 인종에 한 수용성이 높았으며, 특히 서구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부영·강운선(2015)의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국가, 인종, 종교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았고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에게 더 관용적이었다.

인태정(2009)의 연구에서 학생 집단에서도 학년과 부모님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에 따라서 문화 다양성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김갑석(2009)의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에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6가지의 성별, 나이, 결혼여부, 자녀, 종교, 학력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별, 학년, 부모님 거주 지역, 종교, 생활수준 등 총 5가지의 개인 특성을 사회인구학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 특성

1) 개념

(1) 중국 이주민의 개념

이주(migration)란 개인이나 종족 집단의 이동, 그리고 그들의 한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지리적 및 공간적 재배치를 의미한다. 이주는 이미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국제이주의 시대, 한국도 세계화 흐름에 따라 이주민이 급증하였는데, 2015년 170만 명을 돌파하였다.

중국인 이주민의 한국으로의 이주는 1982년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동포의 한국 친척 방문을 허용하고, 1986년에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이 중국동포를 상대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산가족의 일원으로 홍콩을 거쳐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이진영·박우, 2009).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더욱 많은 중국동포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입국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었는데, 방문 취업자격으로 한국에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 중국 관광객의 개념

중국은 해외로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을 동포와 화교와 그리고 외래 관광객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포는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말함을 의미한다. 외래 관광객은 홍콩, 마카오, 대만여권과 여행 허가증을 소지하며, 중국 방문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대만의 동포 방문비율이 급증하면서 대만인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구분하고 있다. 화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와 중국 여권을 소지한 교포들을 의미한다. 외래 관광객은 홍콩, 마카오, 대만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중국계에 포함된다. 중국 방문객은 범주가 이처럼 복잡한 것은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민족, 국적, 거주지의 3가지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인의 관광객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해보면, “중국인 관광객이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과 대만을 제외한 홍콩, 마카오, 티벳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와 중국여권을 소지한 관광객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호성, 2005).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 관광객은 대만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일컫는다 할 수 있다.

2) 중국인 관광객 현황

중국은 초기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여행은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1978년 10월 개혁개방정책 이후 정치, 경제와 더불어 관광산업의 개발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부터 중국여유유람사업관리국이란 국무원 직속기관의 설치는 관광체제를 확립하는데 시발점이 되었다. 중국은 90년대부터 매년 10% 안팎의 경

제성장률을 보이면서 2000년대에도 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1994년 한국인의 중국여행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1995년에는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가 설치되는 등 양국 간의 관광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2000년 6월부터는 중국 전 지역의 주민들도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도록 협정을 맺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접근성, 관광비용의 저렴성, 오랜 문화교류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는 한국여행객이 중국 방문의 매개로 작용했으며 중국 역시 한국의 중요한 관광객 유치국으로써 1997년에서 2000년까지는 3위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2위에 머물러있다. 중국은 한국여행에서 문화권의 동질성 등의 원인도 있지만 최근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영화, 음악, 드라마와 같은 매체를 통해 한국 관광의 다양성이 제시되고 있다⁶⁾. 또한 쇼핑관광의 매력성, 의료관광, 학생교류단체, 장년층의 단체여행에 따른 다양한 계층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방한무비자제도 개선효과이나 중국인에 대한 특혜 제도 등은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방문케 하여 일본관광객을 추월하게 하였다.

한국관광공사의 2016년 9월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121만 여명으로 동월 대비 26.3% 증가한 1,523,938이며, 중국 관광객 입국현황을 보면, 2016년 1~8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561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대비 36.3% 늘었다. 성수기인 7, 8월 합계도 180만여 명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으며, 9월 1~8일도 20만2000여 명으로 지금까지 최고치다. 또한 추석연휴 이후 항공료 인하, G20 항저우 기간 특별휴무일 지정 등으로 개별여행객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2.8% 증가했다. 방한 중국소비자들은 전체 한국입국외래객에서의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고 한국의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이선, 2012).

6) 劉住, 梁保爾, 陳爲新. 中韓旅遊市場的發扁態勢 [J], 桂林旅遊高等專科學校學報, 2002, 13(4)

<표 2>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 및 중국인

연도	한국의 전체외래객		방한중국인		점유율(%)
	입국자명(명)	증가율	방한 중국인수(명)	증가율	
2010	8,797,658	12.5	1,875,157	39.4	21.3
2011	9,794,796	11.3	2,220,196	18.4	22.7
2012	11,140,023	13.7	2,836,892	27.8	25.5
2013	12,175,550	9.3	4,326,869	52.4	35.5
2014	14,201,516	16.6	5,514,555	41.6	38.8
2015	13,231,651	-6.8	5,467,782	47.3	41.3

방한 중국관광객의 주요 방문 목적은 ‘여가/위락/휴가’가 67.5%로 가장 높으며, ‘쇼핑’ 14%, ‘사업 또는 전문활동’ 7.8%, ‘친구/친지방문’ 6.1%, ‘교육’ 3%, ‘뷰티/건강/치료’ 1%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인과 홍콩인 관광객은 쇼핑목적 방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중국의 대도시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방한 여행을 하는 편이고, 중소 도시의 관광객들 중에서는 자유여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 중 60%는 ‘30대 이상’이며 여성 관광객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이상’이 여행 산업의 신흥세력으로써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관광 목적지를 보면 서울은 79.3%, 제주도 35.1%, 경기도 17.2%이며, 서울지역 중국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는 명동, 동대문시장, 고궁, 롯데월드 순이다(한국관광공사, 2015).

중국인의 제주방문 비율이 높으며, 전체 외래 관광객의 제주 방문 비중은 18.3%이며, 일본인관광객은 1.7%, 미국인관광객 또한 5.4%에 불과하고, 말레이시아관광객 17.3%, 싱가포르관광객은 14.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4. 선행연구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시장개방과

국내 노동력 구조의 변화로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된 1990년대 후반이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더욱 부각되었다.

우종현(2008)은 ‘다문화를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 또는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과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의 정책 자료집에 의하면 다문화사회는 국적이나 인종, 민족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등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인의 다문화 경험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의 서구 선진국 지향인 태도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로는 임도경과 김창숙(2011)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집단에 따라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서양 백인 선호 경향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외국인범죄에 대한 공포가 다문화 인식에 주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에 맞춰져 있는 국내 다문화 정책의 방향이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이주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 국가 간 비교로 서현아 외(2011)는 한·미 예비 유아교사의 다문화 관련 경험에 따른 다문화 이해, 다문화교육 인식 및 태도와 효능감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 인식과 태도의 밀접한 연관인 정체성을 다룬 연구로서, 김현숙 외(2011)는 한·중·일 대학생, 김희재·김현숙(2012)은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정체성의 다문화 태도에 대한 영향을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국가 간, 인종 간 이주 현상이 사회적 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짐에 따라 원주민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관심을 받아 왔다(Hainmueller and Hopkins, 2014).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태도가 형성되기보다는, TV나 여론 매체 등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 고정관념이 먼저 형성이 되어 왔다(김희자, 2009).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인 경험이 아닌 한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인식(장태환, 2001; 임성택, 2003 등) 및 태도(김혜숙, 2002; 김상학, 2004 등), 외국인과의 경험이 적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형성되기 보다는, 대중적인 매체 등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인식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인태정·김희재(2009) 부산·경남지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대학생들의 아버지의 사회 경제적 지위, 대학생들의 보수 및 진보적 가치관, 대학생들의 외국 문화·접촉 경험 등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이주자에 대한 의식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설동훈(2006)의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국민, 민족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것으로 일반인, 대학생, 결혼 이민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십(citizenship),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민족적 배타성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19세 이상의 전 국민의 대상으로 다민족 문화적 다양성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황정미 외, 2007).

그 밖에 사회적 거리 개념(Lauman, 1965, Babbie, 2006)을 사용하여 소수 인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김상학, 2002; 김진희, 2007; 김희자, 2008; 인태정 등), 김상학(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네 가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새터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분석하였다.

임도경과 김창숙(2011)은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권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외국인 주민(범죄)에 대한 공포감 등을 측정·분석하였다.

김희자(2008)는 다양한 외국인 집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회거리감을 알아본 결과, 뚜렷한 백인 선진국 지향성과 일본인에 대한 반감을 확인하였으나, 중국인

과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선호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태한(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족, 인종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인종 민족의식에서 ‘백인 선호’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구화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민족주의 성향은 낮은 반면 서구화현상이 강하고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대학생이 외국인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고 대구나 광주 지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나 가치관 및 인식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줄 뿐 특정 국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국가 이주민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태도의 차이가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님 한국인의 자긍심과 단일민족의식에서 관련된 것인지 또는 외국 문화 접촉 경험에서 온 것인지를 조사해서 중국인의 국내 이주와 관광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국내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늘어나는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로 측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조사한 후 지역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등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68부를 회수하였으며, 이를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조사대상자의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 ②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경험, ③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 ④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⑤ 한국인 자긍심 수준, ⑥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총 5문항으로 성별, 학년, 거주 지역(제주시, 광주시), 종교유무, 생활수준으로 구성되었다.

2)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경험

본 연구에서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경험은 조사대상자가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과의 직접 및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경험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접촉경험과 비접촉 경험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중국 방문 경험, 중국인 접촉 빈도, 중국인 회화 및 교류 수준,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 경향,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3)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은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중 특정 국가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에 따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수 외(2011)의 외국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형용사 어휘로 선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① 예의가 바르다, ② 호감이 간다, ③ 친근하다, ④ 겸손하다, ⑤ 온순하다, ⑥ 똑똑하다, ⑦ 착하다, ⑧ 깨끗하다, ⑨ 조용하다, ⑩ 부유하다, ⑪ 부지런하다, ⑫ 질서를 지키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10으로 나타났다.

4)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유입에 대한 태도’는 중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문화나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범죄율을 높이며,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세금 부담이 늘어갈 것이며,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내용을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따라 ‘매우 반대’ 1점, ‘반대’ 2점, ‘보통’ 3점, ‘찬성’ 4점, ‘매우 찬성’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중 내용의 의미상 일치시키기 위해 3번 문항에서 6번 문항까지는 역점수화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703으로 나타났다.

5) 한국인 자긍심 수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 수준은 ‘귀하는 평소 한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자랑스럽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6)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는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즉, 이 척도는 조사대상자가 단일민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지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김갑석(2009)이 개발한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척도'를 연구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민족 유지', '다민족 간의 협력', '단일민족과 국가 경쟁력', '다양한 민족과 국가 결속력 저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자의 생각이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매우 동의한다', 4점, '동의하는 편이다' 3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단일민족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 4개의 문항 중 2번 문항과 4번 문항은 역점 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0.670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 도구의 구성

조사내용		측정방법	문항 수	Cronbach's α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명목척도	5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경험	명목척도 및 5점 리커트 척도	7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5점 리커트 척도	12	.910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5점 리커트 척도	6	.703
한국인 자긍심 수준		4점 리커트 척도	1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		4점 리커트 척도	4	.67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경험 요인 및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경험과 태도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χ^2 검증,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거주지역, 종교유무, 생활수준을 살펴보았으며, <표 4>과 같다.

성별은 ‘남성’ 비율이 39.2%, ‘여성’ 비율이 60.8%로 여성 비율이 남성 보다 높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2학년’(24.6%), ‘3학년’(20.1%), ‘4학년’(14.9%)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제주지역’(58.2%)에 거주하는 비율이 ‘광주지역’(41.8%)에 거주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며, 종교가 없는 응답자가 33.2%로 과반수가 넘는 66.8%의 응답자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을 5점 리커트로 측정한 후, ‘매우 잘 산다’와 ‘대체로 잘 산다’를 ‘상’ 집단으로, ‘보통’을 ‘중’ 집단으로, ‘대체로 못 산다’와 ‘매우 못산다’를 ‘하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상 집단’이 26.1%, ‘중 집단’이 61.2%, ‘하 집단’이 12.7%로 ‘중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105	39.2
	여성	163	60.8
학년	1학년	108	40.3
	2학년	66	24.6
	3학년	54	20.1
	4학년	40	14.9
거주지역	제주시	156	58.2
	광주광역시	112	41.8
종교유무	종교 있음	179	66.8
	종교 없음	89	33.2
생활수준	상	70	26.1
	중	164	61.2
	하	34	12.7

2) 조사대상자의 중국 이주민 및 관광객 경험

조사대상자의 중국 이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경험을 중국 방문 경험, 중국인 접촉 빈도, 중국인 회화 및 교류 가능 수준, 중국인 이주민 및 관광객 증가 경향, 중국인 이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표 5>와 같다.

중국 방문 경험은 ‘없다’(68.7%)가 ‘있다’(31.3%)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중국인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낮음’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국인 회화 및 교류 가능 수준은 과반수가 넘는 81.7%가 ‘하’라고 응답하여 중국인 회화 및 교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 경향은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이나 관광객이 더 유입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매스미디어’(42.9%)와 ‘직접경험’(42.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국인 관광객에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직접 경험’(43.7%)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많은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이주민 및 관광객 경험

구분		평균/N	표준편차/%
중국 방문경험	있다	84	31.3
	없다	184	68.7
중국인 접촉 빈도	높음	101	37.7
	보통	48	17.9
	낮음	119	44.4
	평균	2.89	1.29
중국인 회화 및 교류 가능	상	14	5.2
	중	35	13.1
	하	219	81.7
	평균	1.75	0.91
중국인 이주민 증가 경향	증가	226	84.3
	유지	32	11.9
	감소	10	3.7
	평균	4.19	0.81
중국인 관광객 증가 경향	증가	210	78.4
	유지	44	16.4
	감소	14	5.2
	평균	4.16	0.88
중국인 이주민 인식 형성 영향 요인	선생님	11	4.1
	친구	27	10.1
	매스미디어	115	42.9
	직접경험	115	42.9
중국인 관광객 인식 형성 영향 요인	선생님	7	2.6
	친구	32	11.9
	매스미디어	112	41.8
	직접경험	117	43.7

3)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를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반대’ 1점 ~ ‘매우 찬성’ 5점)를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태도 평균 점수는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3번(중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 4번(중국인은 일자리와 복지를 뺏어간다), 5번(중국인이 늘어나면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6번(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나 중국인 자녀는 한국인 자녀와의 갈등 혹은 문제를 일으킨다)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먼저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82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중국인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외교에 도움이 된다’(3.18점)인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중국인은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2.1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태도 점수는 2.90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중국인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외교에 도움이 된다’(3.19점)인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중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2.2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태도 점수가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6>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구분	중국인 이주민		중국인 관광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국인은 우리 문화를 풍부하게 한다.	2.97	1.06	3.04	1.06
중국인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외교에 도움이 된다.	3.18	1.02	3.19	1.03
중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 ^{역)}	2.13	0.95	2.28	1.01
중국인은 일자리와 복지를 뺏어간다. ^{역)}	2.78	0.95	2.78	.93
중국인이 늘어나면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역)}	2.87	0.96	2.99	.9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나 중국인 자녀는 한국인 자녀와의 갈등 혹은 문제를 일으킨다. ^{역)}	3.01	0.99	3.09	1.02
평균	2.82	.63	2.90	.58

역)은 역코딩한 문항임.

4) 한국인의 자긍심 수준

한국인의 자긍심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으며(‘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1점 ~ ‘대체로 자랑스럽다’ 5점) 그 결과는 <표 7>과 같고, 3.54점으로 보통 수준을 훨씬 넘는 것으로 국내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7> 한국인의 자긍심 수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한국인의 자긍심 수준	3.54	0.91

5)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를 4점 리커트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 ‘매우 동의한다’ 4점)로 측정하였고, 2번(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인들 간의 협력보다 국적과 인종, 민족을 넘어선 협력이 더 중요하다)과 4번(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 문항은 내용의 의미상 역코딩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 점수는 2.48점으로 나타나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 온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2.90점)인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인들 간의 협력보다 국적과 인종 민족을 넘어선 협력이 더 중요하다’(1.8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김종태(2013) 단일민족 의식은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고).

<표 8>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 온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2.90	0.81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인들 간의 협력보다 국적과 인종, 민족을 넘어선 협력이 더 중요하다. ^{역)}	1.84	0.70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2.69	0.83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 ^{역)}	2.48	0.85
평균	2.48	0.31

역)은 역코딩한 문항임.

2.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

1)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12개의 문항 ‘예의가 바르다’, ‘호

감이 간다’, ‘친근하다’, ‘겸손하다’, ‘온순하다’, ‘똑똑하다’, ‘착하다’, ‘깨끗하다’, ‘조용하다’, ‘부유하다’, ‘부지런하다’, ‘질서를 지키다’ 을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동의한다’ 1점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점)를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9>과 같다.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1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조용하다’(4.14점)인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부유하다’(2.20점)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이 시끄럽지만 부유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표 9>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예의가 바르다	3.41	1.04
호감이 간다	3.31	1.20
친근하다	3.28	1.20
겸손하다	3.39	1.15
온순하다	3.42	1.17
똑똑하다	3.20	1.10
착하다	3.31	1.10
깨끗하다	3.93	1.00
조용하다	4.14	1.04
부유하다	2.20	1.12
부지런하다	3.35	1.03
질서를 지키다	4.01	1.03
평균	3.41	0.784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를 t-test와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3.26점) 보다는 여성의 점수(3.51)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1학년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3.58점)를 보인 반면, 3학년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3.23점)를 보이며($F=3.322$, $*p < .05$)로 1학년이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집단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중국인 이주민과 접촉빈도가 더 높은 제주지역 대학생(3.84점)이 광주지역 대학생(2.82점)보다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유무는 종교가 없는 집단(3.62점)이 있는 집단(3.31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종교가 없는 대학생이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에서는 ‘상’ 집단(3.05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중’ 집단=3.57점, 하 집단=3.38점)에 비해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이, 1학년이, 제주도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집단이,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이 ‘상’ 집단이 중국인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비고	
성별	남(n=105)	3.26	0.79	-2.615**	
	여(n=163)	3.51	0.76		
학년	1학년(n=108)	3.58	0.79 ^a	3.322*	a>ab>b
	2학년(n=66)	3.29	0.74 ^{ab}		
	3학년(n=54)	3.23	0.75 ^b		
	4학년(n=40)	3.41	0.77 ^{ab}		
거주 지역	제주시(n=156)	3.84	0.62	13.748***	
	광주광역시(n=112)	2.82	0.56		
종교 유무	종교 있음(n=179)	3.31	0.77	-3.177**	
	종교 없음(n=89)	3.62	0.76		
생활 수준	상(n=70)	3.05	0.74 ^b	11.670***	a>b
	중(n=164)	3.57	0.71 ^a		
	하(n=34)	3.38	0.93 ^a		

* $p < .05$, ** $p < .01$, *** $p < .001$

2)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12개의 문항 ‘예의가 바르다’, ‘호감이 간다’, ‘친근하다’, ‘겸손하다’, ‘온순하다’, ‘똑똑하다’, ‘착하다’, ‘깨끗하다’, ‘조용하다’, ‘부유하다’, ‘부지런하다’, ‘질서를 지키다’ 을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동의한다’ 1점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점)를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는 3.58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인 대학생들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2개의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조용하다’(4.18점)인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부유하다’(2.44점)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중국인 이주민과 동일하게 시끄럽고 부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1>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예의가 바르다	3.56	1.01
호감이 간다	3.53	1.09
친근하다	3.40	1.10
겸손하다	3.59	1.04
온순하다	3.65	1.07
똑똑하다	3.46	1.10
착하다	3.51	1.07
깨끗하다	4.11	0.90
조용하다	4.18	0.97
부유하다	2.44	1.23
부지런하다	3.48	1.09
질서를 지키다	4.05	.95
평균	3.58	.75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t-test와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2>과 같으며, 학년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3.44점)보다는 여성의 점수(3.67점)가 더 높으며,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이 남성보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집단(3.95점)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집단(3.06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빈도가 더 높은 제주지역 대학생이 광주지역 대학생보다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는 종교가 없는 집단(3.72점)이 있는 집단(3.51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종교가 없는 대학생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에서는 ‘상’ 집단(3.21점), ‘중’ 집단(3.74점), ‘하’ 집단(3.56점)으로 ‘상’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광주지역 대학생이, 종교가 있는 집단이, 생활수준이 ‘상’ 집단이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비고
성별	남(n=105)	3.44	0.76	-2.494**	
	여(n=163)	3.67	0.73		
학년	1학년(n=108)	3.70	0.76	1.750	
	2학년(n=66)	3.46	0.74		
	3학년(n=54)	3.48	0.73		
	4학년(n=40)	3.60	0.74		
거주 지역	제주지역(n=156)	3.95	0.60	11.845***	
	광주지역(n=112)	3.06	0.62		
종교 유무	종교 있음(n=179)	3.51	0.75	-2.249*	
	종교 없음(n=89)	3.72	0.73		
생활 수준	상(n=70)	3.21	0.66 ^b	12.963***	a>b
	중(n=164)	3.74	0.70 ^a		
	하(n=34)	3.56	0.90 ^a		

* $p < .05$, ** $p < .01$, *** $p < .001$

3.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경험요인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인식 차이 비교

1) 중국인 이주민 경험요인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중국인 이주민 경험요인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를 t-test와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으며, 중국인 접촉 빈도($F=44.458$, $p < .001$) 와 중국인 이주민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F=14.813$,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접촉빈도는 접촉 빈도가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3.84점)를 보인 반면, 접촉 빈도가 낮은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2.99점)를 보여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중국인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태정·김희재(2009) 외국방문 경험,

외국인 접촉 경험, 국내외 외국인 친구 유무에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외국 방문 경험, 외국인 접촉 경험이 있을수록 부정적이지 않다는 부분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중국인 이주민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직접 경험’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3.75점)를 보여 가장 낮은 점수(3.04점) 선생님 집단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인식이 형성된 대학생들은 중국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접촉 빈도가 낮은 집단이, 이주민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경험한 집단이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중국인 이주민 경험요인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비고
중국 방문경험	있다(n=84)	3.28	0.77	-1.807	
	없다(n=184)	3.47	0.78		
중국인 접촉 빈도	높음(n=101)	3.84	0.67 ^a	44.458***	a>b b>c
	보통(n=48)	3.58	0.61 ^b		
	낮음(n=119)	2.99	0.71 ^c		
중국인 회화 및 교류 가능	상(n=14)	3.13	0.83	2.415	
	중(n=35)	3.22	0.83		
	하(n=219)	3.46	0.76		
중국인 이주민 증가 경향	증가(n=226)	3.45	0.80	2.115	
	유지(n=32)	3.22	0.64		
	감소(n=10)	3.09	0.67		
중국인 이주민 인식 형성 영향 요인	선생님(n=11)	3.04	0.89 ^b	14.813***	a>b
	친구(n=27)	3.19	0.63 ^b		
	매스미디어(n=115)	3.16	0.73 ^b		
	직접 경험(n=115)	3.75	0.72 ^a		

*** $p < .001$

2) 중국인 관광객 경험요인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중국인 관광객 경험요인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를 t-test와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으며, 중국인 접촉 빈도($F=30.420$, $p < .001$)와 중국인 관광객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F=12.877$,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접촉 빈도는 접촉 빈도가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3.92점)를 보인

반면, 접촉 빈도가 낮은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3.33점)를 보여 접촉빈도가 많은 집단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직접 경험’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3.88점)를 보인 반면, ‘매스미디어’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3.30)를 보여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 대학생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접촉 빈도가 낮은 집단이, 이주민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매스미디어와 선생님에게 경험한 집단이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중국인 관광객 경험요인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비고
중국 방문경험	있다(n=84)	3.50	0.72	-1.189	
	없다(n=184)	3.62	0.76		
중국인 접촉 빈도	높음(n=101)	3.92	0.68 ^a	30.420***	a>b
	보통(n=48)	3.74	0.58 ^b		
	낮음(n=119)	3.22	0.71 ^b		
중국인 회화 및 교류 가능	상(n=14)	3.32	0.82	1.842	
	중(n=35)	3.43	0.81		
	하(n=219)	3.62	0.73		
중국인 관광객 증가 경향	증가(n=210)	3.61	0.78	1.290	
	유지(n=44)	3.48	0.55		
	감소(n=14)	3.34	0.81		
중국인 관광객 인식 형성 영향 요인	선생님(n=7)	3.44	0.82 ^{ab}	12.877***	a>ab>b
	친구(n=32)	3.51	0.72 ^{ab}		
	매스미디어(n=112)	3.30	0.67 ^b		
	직접 경험(n=117)	3.88	0.73 ^a		

*** $p < .001$

4.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태도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1) 중국인 이주민의 태도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중국인 이주민의 태도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태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을 ‘고’집단, 낮은 집단을 ‘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중국인 이주민의 태도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F=7.745$, $p < .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저’ 집단)를 보인 집단이 3.82점이며, 긍정적인 태도(‘고’ 집단)를 보인 집단이 3.14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고).

임도경·김창숙(2011)의 외국인 집단별 인식으로 일본인, 외국이 유학생,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중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일맥상통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5> 중국인 이주민 태도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t-value
저 집단(n=108)	3.82(0.69)	7.745***
고 집단(n=160)	3.14(0.71)	

*** $p < .001$

2) 중국인 관광객의 태도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중국인 관광객의 태도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태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을 ‘고’집단, 낮은 집단을 ‘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태도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F=4.658$, $p < .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저’ 집단)를 보인 집단이 3.80점이고 긍정적인 태도(‘고’ 집단)를 보인 집단 3.38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고).

<표 16> 중국인 관광객 태도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t-value
저 집단(n=126)	3.80(0.75)	4.658***
고 집단(n=142)	3.38(0.70)	

*** $p < .001$

5.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 <표 18>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점 여부를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중국인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인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설명력(R^2)은 52.9%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099$, $p < .001$).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거주지역이 제주지역 대학생이 $\beta=.485$ 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β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p < .001$). 또한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beta = -.183$ 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p < .001$), 한국인 자긍심 수준은 $\beta = -.160$ 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p < .01$), 단일 민족에 대한 선호도도 $\beta = -.092$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역이 광주지역인 대학생이, 이주민 태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한국인 자긍심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단일 민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중국인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B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남성=1)	-.139	-.087	-1.946
	학력(연속변수)	.022	.030	.682
	거주지역(제주시=1)	.770	.485	8.036 ***
	종교(있음=1)	.018	.011	.233
	생활수준(연속변수)	-.026	-.024	-.531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경험	중국 방문 경험(있음=1)	-.066	-.039	-.830
	중국인 접촉 빈도(연속변수)	-.047	-.077	-1.297
	중국인 회화 및 교류 가능 수준(연속변수)	-.077	-.090	-1.837
	중국인 이주민 증가 경향(연속변수)	.059	.061	1.342
	이주민에 대한 특성 영향 요인(직접 경험=1)	.099	.062	1.244
이주민 태도		-.228	-.183	-3.550 ***
한국인 자긍심 수준		-.138	-.160	-3.518 **
단일 민족에 대한 선호도		-.229	-.092	-2.096 *
상수		4.745***		
F값		24.099***		
adj R ²		0.529		

* $p < .05$, ** $p < .01$, *** $p < .001$

2) 중국인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인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설명력(R^2)은 39.8%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569$, $p < .001$)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이 여성이 $\beta = -.106$ 이며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p < .05$), 거주지역이 제주지역 대학생이 $\beta = .471$ 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p < .001$)).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태도수준이 낮은 집단이 $\beta = -.131$ 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p < .05$)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남성인 경우, 거주지역이 광주지역인 경우, 관광객 태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중국인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B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남성=1)	-.164	-.106	-2.105 *
	학력(연속변수)	.034	.050	.989
	거주지역(제주시=1)	.718	.471	6.695 ***
	종교(있음=1)	.069	.043	.822
	생활수준(연속변수)	.048	.046	.901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경험	중국 방문 경험(있음=1)	.000	.000	.002
	중국인 접촉 빈도 (연속변수)	-.030	-.052	-.789
	중국인 회화 및 교류 가능 수준(연속변수)	-.081	-.098	-1.772
	중국인 관광객 증가 경향(연속변수)	.011	.013	.242
	관광객에 대한 특성 영향 요인(직접 경험=1)	.127	.084	1.545
관광객 태도		-.156	-.131	-2.250 *
한국인 자긍심 수준		-.070	-.085	-1.582
단일 민족에 대한 선호도		-.120	-.050	-1.008
상수		4.091***		
F값		14.569***		
adj R ²		0.398		

* $p < .05$,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늘어나는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각도로 측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조사 및 연구하였다. 또한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즉, 대학생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년, 거주지역, 종교유무, 생활수준), 중국 이주민 및 관광객 경험(중국 방문경험, 중국인 접촉빈도, 중국인 회화 및 교류 가능 수준, 중국인 이주민 및 관광객 증가 경향,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 인식 형성요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한국인의 자긍심 수준, 단일민족 선호도 등의 관련 변인들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6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중국 이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60.8%로 높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2학년’(24.6%), ‘3학년’(20.1%), ‘4학년’(14.9%)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제주 지역’(58.2%)에 거주하는 비율이 ‘광주지역’(41.8%)에 거주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며, 종교가 없는 응답자가 33.2%로 과반수가 넘는 66.8%의 응답자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을 ‘매우 잘 산다’와 ‘대체로 잘 산다’를 ‘상’ 집단으로, ‘보통’을 ‘중’ 집단으로, ‘대체로 못 산다’와 ‘매우 못산다’를 ‘하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상 집단’이 26.1%, ‘중 집단’이 61.2%, ‘하 집단’이 12.7%로 ‘중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내 대학생들의 중국 이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경험으로 중국 방문 경험은 ‘없다’(68.7%)가 ‘있다’(31.3%)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중국인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낮음’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국인 회화 및 교류 가능 수준은 과반수가 낮았으며,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증가 및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이나 관광객이 더 유입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형성에 매스미디어와 직접경험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중국인 관광객에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직접 경험’(43.7%)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많은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은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학년이 1학년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중국인 이주민과 접촉빈도가 많은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집단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활수준은 ‘상’ 집단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이 떠들고 시끄럽지만 부유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관광객에 대한 인식 역시 떠들고 시끄럽지만 부유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민태정·김희재(2009) 남성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외국 방문 경험, 외국인 접촉 경험 등 이주자에 덜 폐쇄적인 태도와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결과와는 상반되었으며, 민현정(2014)의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며, 민족 집단 간 접촉은 무시, 두려움, 분개, 공공연한 갈등을 낳으며, 접촉이 많아질수록 갈등과 편견을 해소되기 보다 더 심화된다는 결과와 같았다. 또한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이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정미 외, 2007)를 뒷받침 해주며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도경·김창숙(2011)의 외국인 집단별 태도와 인식에서 일본인, 외국이 유학생,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중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과는 일맥상통한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의 태도에 대학생들은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범죄율을 높이며,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세금 부담이 늘어갈 것이며,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따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인식은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은 중국 이주민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범죄율의 상승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문제 발생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내 차오포비아 현상이 높았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숙(2014)의 현재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과 조선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도 국내 대학생들은 부정적 인식과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태도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인종적 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고착화 될 경우 서구 사례에서 이미 나타났던, 인종적 문화적 갈등의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각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적, 집합적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천정웅 외 2012, 재인용)본다.

넷째, 중국인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거주지역이 제주지역인 경우에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지역 대학생이고, 이주민 태도 수준이 높고, 한국인 자긍심 수준이 높고, 단일 민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대학생이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인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이 여성인 경우, 거주지역이 제주지역인 경우에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고, 광주지역 대학생이, 관광객 태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내 대학생들은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았고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거주지역의 영향이 가장 높았다. 이는 중국인에 대한 경험에 따른 인식이 영향을 끼쳤는데, 중국인과 접촉빈도가 많은 제주 지역 대학생들은 광주지역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다음으로 성별의 영향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이주민과 관광객에 인식이 덜 긍정적이었으

며,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수준이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자긍심 수준과 단일 민족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수록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갖는 의의와 앞으로 보완할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국내 대학생들의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의 이주 외국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민태정 외, 2009)과 사회적 거리감(김상학, 2004), 한국적 다문화주의(오경석 외, 2007)등의 양상만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특정 집단인 중국의 이주자 집단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연구 대상인 대학생들의 집단적 특성과 연관지어 어떠한 요인들이 이주자와 관광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분석적으로 연구한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국내 대학생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차오포비아 확대되면서 문화적 차이는 이해의 관계가 아닌 이질감과 혐오의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 복지정책의 중요한 한계점을 시사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이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다문화 시민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적 자료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의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과 광주지역의 대학생 268명을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했고, 그 크기 역시 300명 이내에 불과한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대학생 전체, 나아가 일반 국민 전체의 대표성 및 일반화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응답과정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대상을 성인 지역민으로 점차 확대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주장들이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일부 탐색했으나 인식과 태도의 연결선 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파악한다면 더 풍부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과의 교류 및 접촉성에 있어서 지역적 한계 및 다소의 편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다양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을 지향하는 제주지역과 광주지역은 외국계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복지정책을 더 이상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주체가 아니라 사례의 대상으로 고정되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민들을 이주 및 거주하는 데 꺼리지 않도록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고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다문화 시민성과 다문화 복지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최현, 2013)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세계화시대에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호혜적인 입장에서 융합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며 외국인이나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포용적인 정책을 펴고 다문화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을 갖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 또는 이주민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기도 해서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이주자와 관광객 증가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계적이며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상호 공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기본교육은 경제수준과 국제적 감각 등의 차원에서 외국인의 인식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인종적 문화적 갈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민적 방법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갑석(2009).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人文社會科學研究』, pp. 217-256
- 강진구(2008).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이 다문화 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다
문화콘텐츠 연구』, pp. 53-77
- 강준혁(2011).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대한 군
집분석」,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김동수·김도환·정태연(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pp. 1-23.
- 김민경(2010).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pp. 173-199.
- 김용신(2014). 「한국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 분석을 위한 개념과 지표의 구
축」, 『국제지역연구지』, pp. 679-706.
- 김중태·한기덕(2013). 「한국 대학생의 외국인 차별 의식의 담론적 근원, 한국
사회학회」, 『사회복지학회』, pp. 679-706.
- 김혜숙(2015). 「대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논문지』, pp. 113-135
- 민현정(2015).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형 연구」 공주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미혜(2014).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경험, 학부모의 고정관념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
지』, 15(5), pp. 2749-2757.
- 박시사(2002). 「관광소비자행동론」, 「대왕사」, pp. 27-28.
- 박찬욱(1998). 「반편견 교육과정의 정의 및 필요성. 반편견 교육과정을 통한 인
간교육」, 『제12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pp. 15-34.
- 송관재·김범준·홍영오·이훈구(1997).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 거리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pp. 123-141.
- 신동준(2012).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형사정책연구 학술지』, pp. 183-217
- 신왕은(2014) 「제주지역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제주관광협회』, pp. 90-116.
- 이부영·강운선(2015).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5(1), pp. 1-19.
- 이윤구(2009). 「우리나라 제노포비아 실태와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이슬기(2008). 「푸틴시기의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승하(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 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교육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러시아 전공 석사논문
- 이용희(2012).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다문화 친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춘천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진아(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창식(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관련 변인」,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인태정(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한 사회 거리감과 문화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pp. 339-370.
- 인태정·김희재(2009). 「국내 이주 외국인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생 의식 조사」 『아세아 연구』, 52(2), pp. 184-213
- 임도경·김창숙(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1), pp. 5-34.
- 임민옥(2015).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인문사회 대학원 석사논문
- 이진영·박우(2009). 「제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51, 『한국동북아학회』 pp. 104
- 이하령(2007).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구: 고정관념, 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2012). 「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광홍(2015). 「관광 의사결정 주요 변수들이 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인문대학원 석사논문
- 장임숙·이원일 (2012).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15(4), pp. 177-199
- 정기선(2004).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p. 82
- 정탁준(2008).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반편견 교육방법 연구」, 『도덕윤리와 교육연구』, pp. 27
- 정하나(2016).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사회정책, 23(2), pp. 83-112.
- 최석호(2011).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향 모색」,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645-665.
- 최 현(2013). 「제주형 복지공동체 만들기 비전과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다문화 복지정책」, 『제주국제협의회 총서』, pp. 148-151.
- 팽 수(2015). 「중국관광객의 한국방문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논문
- 한건수(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다문화와 인간 학술지』, pp. 113-143
- 허경미(2014). 「한국의 제노포비아 발현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찰학논총지』, pp. 233-259
- 해리텐트(2015).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청림출판 .
-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 연구」, 53(4), pp. 152-184.
- 황정미(2011). 「다문화 담론의 확산과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 변화: 의식조사

-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pp. 24.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경제원(2014).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14(34), 1-14.
- 한국문화관광(2009).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중국 해외여행 시장 조사」
-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15). 외국인고용조사.
- 한국공사(2014). 방한관광시장분석 .
- 한국학술정보원, <http://www.riss.kr/index.do>
- 행정자치부(2015). 외국인주민현황.

국외문헌

- Allport, G. W(1979).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Barker , Robert L(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 (3r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Cliford, R.Shaw, Henry D. Mc Kay,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ago,IL:Universiy of Chic ago Press ,1969)참조
- Crocker, J.Luhtanen, R. Blaine, B, & Broadnax, S(1994). Collective self - esteem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pp. 503- 51
- Evans. M.D.R and Kelly Janathan(2002). "International Pride in the Denveloped World: Survey Data from 24 Nations.Journal of Public Ppinion Researchvol, 14. no. 3, pp. 304-310

Tropp & Pettigrew(2005). "International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pp. 65-85

<부록>

설문지

국내 대학생의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제주지역과 광주지역 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로 보장되며 연구 통계 목적 이외의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 문항에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지도교수 남진열

연구자 용해연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의 질문들입니다. √표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남 ②여

2. 현재 재학 중인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귀하의 부모님이 살고하고 있는 지역은?

①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서귀포시 동지역
④서귀포시 읍면지역 ⑤기타()

3. 귀하의 부모님이 살고하고 있는 지역은?

①광주시 동지역 ② 광주시 읍면지역 ③기타()

4. 귀하의 종교는?

① 개신교(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종교 없음
⑤ 기타()

5. 생활수준을 1(매우 잘산다, 상위10%)에서 5(매우 못산다, 하위 10%이내)까지로 구분할 때, 본인의 가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매우 잘 산다	대체로 잘 산다	보통	대체로 못 산다	매우 못 산다
1	2	3	4	5

6.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중국인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매우 자주 접한다(매일)	자주 접한다	보통이다 (1주일에 1번)	대체로 접하지 않는다	전혀 접하지 않는다
---------------	--------	----------------	-------------	------------

	(1주일에 2~4번)		(6개월에 1번)	(1년에 한번이하)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중국인과 회화 및 교류가 가능하십니까?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보통	거의 못한다	전혀 못한다
1	2	3	4	5

다음은 중국인 이주민 인식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표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만 2357명으로(2016년 10월 기준) 제주 인구의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주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약간 늘어날 것이다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약간 줄어들 것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3만 명으로(2016년 10월 기준) 광주 인구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주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약간 늘어날 것이다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약간 줄어들 것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중국인 이주민 대한 이미지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이미지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예의가 바르다					

2	호감이 간다					
3	친근하다					
4	겸손하다					
5	온순하다					
6	똑똑하다					
7	착하다					
8	깨끗하다					
9	조용하다					
10	부유하다					
11	부지런하다					
12	질서를 지키다					

3.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특성은 주로 누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 ① 가족 ② 선생님 및 교수 ③ 친구 ④ 매스미디어 ⑤ 직접경험

4. 다음은 제주에 있는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문항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1	중국인은 우리 문화를 풍부하게 한다					
2	중국인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외교에 도움이 된다					
3	중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					
4	중국인은 일자리와 복지를 뺏어간다					
5	중국인이 늘어나면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6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나 중국인 자녀는 한국인 자녀와의 갈등 혹은 문제를 일으킨다					

다음은 중국인 관광객 인식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표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5.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약간 늘어날 것이다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약간 줄어들 것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광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약간 늘어날 것이다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약간 줄어들 것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중국인 관광객 이미지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이미지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예의가 바르다					
2	호감이 간다					
3	친근하다					
4	겸손하다					
5	온순하다					
6	똑똑하다					
7	작하다					
8	깨끗하다					
9	조용하다					
10	부유하다					
11	부지런하다					
12	질서를 지키다					

7.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특성은 주로 누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 ① 가족 ② 선생님 및 교수 ③ 친구 ④ 매스미디어 ⑤ 직접경험

8. 다음은 제주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태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문항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1	중국인은 우리 문화를 풍부하게 한다					
2	중국인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외교에 도움이 된다					
3	중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					
4	중국인은 일자리와 복지를 뺏어간다					
5	중국인이 늘어나면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6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나 중국인 자녀는 한국인 자녀와의 갈등 혹은 문제를 일으킨다					

다음은 한국인의 자긍심과 단일민족 선호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표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9. 귀하는 평소 한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우리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아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①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온 것은 매우 자랑스런 일이다				
②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인들 간의 협력보다 국적과 인종, 민족을 넘어선 협력이 더 중요하다				
③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Social Welfare

Yong, Hae-yeon

After measuring the perceptions of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whose number has been rising in recent years, among college students at various angles and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how to look at coexistence and conflict between local residents and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in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set out to conduct a practical survey, analyze local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and identify factors to affect the perceptions of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For those purposes,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survey with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Jeju City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on November 1~11, 2016. Total 268 questionnaires were used in analysis and went through the data coding and cleaning process for analysis with the SPSS for Window

21.0 program.

The main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amo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oun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recorded a higher response rate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and that the "freshmen" showed a higher response rate than other graders. As the grade went up, the response rate went down. The highest response rate was found among those who lived in the "Jeju area," among those who "had religion," and among those who belonged to the "middle group" of living standard.

Second, as for the perceptions of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nation, they were negatively perceived by those who were female, were in the freshman year, lived in the Jeju City, made frequent contacts with Chinese immigrants, and had no religion. They were positively perceived by those who belonged to the "upper" group of living standard.

Third, the college students exhibited very strong negative attitudes toward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and had negative perceptions of both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for higher crime rates, burdens on jobs and welfare, greater tax burdens, and conflicts with their children.

Fourth, the study specifically looked into the causes to influence their perceptions of Chinese immigrants and found that the area of residence, especially the Jeju area, had impacts on their perceptions of Chinese immigrants among their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negative perceptions of Chinese immigrants were high among those who had a low attitude level toward immigrants, low pride as Korean people, and low preference for a single-race nation.

Finally, of their sociodemographic factors, gender(female) and area of residence(Jeju City) had impacts on their perceptions of Chinese tourists. The negative perceptions of Chinese tourists were high among those who had a low attitude level toward tourists.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college students in the nation had very high negative perceptions of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which is reconfirmed by the recent emergence of chaophobia. Since it is predicted that the growth of Chinese immigrants and tourists will expand to many more areas, both Jeju and Gwangju can no longer afford to leave out multicultur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immigrants and need to change their multicultural citizenship and welfare policies for them. It is needed to develop programs for cultural mutual coexistence and take an educational approach toward them so that college students can accept a variety of culture in a desirable and systematic way. I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basic national education for foreigners to have ongoing impacts on the changing perceptions of foreigners and prevent the issues of racial and cultural conflicts in advance.

Keywords: China, immigrant, tourist, perception, attitude, multicultural citizenship, multicultural welfare policy